

학원강의 활용법

합격생이 전하는 수험생활

이름	김수현				
전공 학과(부)	화학공학과	수험형태	전업	선택과목	반응공학
학습기간	(19.7 ~ 21.8)			시험응시횟수	2회
시험점수	민소 (63)	특허 (56.33)	상표 (53.33)	선택 (67)	총점 (172.66) 평균 (57.55)

1. 들어가며

2학년 2학기까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매우 많았습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 휴학을 하지 않고 바로 졸업을 하여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다니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고민을 좀 더 하게 되었고, 전문직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때가 이미 2학년 2학기까지 다닌 때라, 약대를 들어가기 위해 피트를 준비하기에는 늦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변리사 시험 공부를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장기간 걸리는 시험이라고 들어서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응원에 큰 마음을 먹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 공부 방법

저는 잠이 많지만, 밤보다는 오전에 집중이 잘되는 편이라, 밤 12시 전에는 잠들었고 7시에 일어 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집에서 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독서실에서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1~2달인가 다니고 관났습니다. 독서실 1인실에서 혼자 공부를 하니 뭔가 1인실 부스에 갇혀있는 느낌을 받았고 너무 답답해서 집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독서실을 1달인가 다니고 답답해서 관났는데 이번에 공부를 할 때도 이와 같은 이유로 집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것의 단점은, 조금 늘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1차 때는 딱히 이런 건 없었지만, 2차 때 체력적으로 지치면서 공부를 조금 게을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동차 때와 기득 때 스터디를 했습니다. 동차 때는 동네 사람들과 스터디를 구해서 1주일에 1~2번 정도 gs를 2시간 정도 써보는 스터디를 했고, 기득 때는 매일 민소 사례집 목차를 잡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사례 목차를 다 잡고서는 아무 과목이나 하루에 5문제씩 목차를 잡는 그런 스터디를 시험 1개월전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 강제성을 부여하게 되어서, 공부하다 늘어지는 걸 방지해줄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딱히 저만의 특별한 공부방법은 없지만, 1차는 무조건 기본서와 객관식문제집을 자주 보고, 지문을 익히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차 때는 판례에 중점을 두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3. 수강 과정

1차 때 남들이 하는 커리큘럼대로 민법 기본강의 수강완료 후 바로 특허법 기본강의를 들었습니다. 특허법 기본강의를 수강하면서는 특허법 복습하기도 바빴기에, 민법을 조금씩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기본강의를 빨리 들어버리자는 마인드가 있었기에 기본강의를 들으면서는 그 과목 복습을 하느라 다른 과목 복습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상표법까지 다 들은 후, 그제서야 민법을 다시 보며, 10개년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10개년 기출문제를 풀 때는 정말 많이 틀렸는데 여러 번 다시 푸니, 빈출 지문은 아예 외워버리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은 강의가 짧은 편이라 어느 정도 민법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들었습니다. 특허와 상표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복습하며 객관식 문제집을 풀었고, 이렇게 문제집을 여러번 푸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문제집을 푸 게 아니라, 그냥 한 문제집만 반복해서 여러번 봤습니다.** 민법은 10개년 기출외에도 민법 연습의 종결이라는 매우 두꺼운 문제집을 풀었으며, 그것 또한 시험 전까지 최소 4번은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험을 봤던 해에는 3개의 법과목 모두 법조문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터라 객관식 문제집을 여러번 풀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연과학의 경우 코로나로 시험이 밀리기 전에 물리와 지구과학정도만 기본강의를 들었고, 지구과학의 경우 기본서에 실린 문제와 기출문제만 풀었고, 물리의 경우는 기출문제와 피트문제도 풀었습니다. 화학은 전공이 이쪽이라 따로 강의

같은건 듣지 않고 객관식 문제집만 풀었습니다. 생물의 경우는 그냥 처음에 문제집만 풀다가, 너무 많이 틀리고 개념도 아예 모르겠어서 코로나로 시험 날짜가 바뀐 후, 기본강의를 들었습니다. 자연과학은 75점으로 그렇게 잘 본 편은 아니라 제가 공부했던 방식이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밀리면서 1차 보기 전에 2차 특허법 기본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신판례강의도 민법, 특허법, 상표법 모두 들었습니다. 1차가 끝나고 1주일 정도 쉬 후, 민사소송법 기본강의를 들었습니다. 복습은 많이 하지 않았고 기본강의를 다 듣자마자 사례를 듣느라 바빴습니다. 동차 때 특허와 상표는 기초 gs와 실전 gs 1개씩 밖에 듣지 않았고, 민사소송법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동차 때 처음 기초 gs를 쓸 때는 8페이지를 채우는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한 번도 채우지 못했고, 실전 gs 때에도 민사소송법은 15페이지면 많이 적은 편이었고 특허, 상표의 경우도 13~14페이지 정도면 많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차 때는 불합격을 확신했습니다. 선택과목의 경우 전공과목 중 하나였던 반응공학을 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강의를 수강 후, gs랑 기출문제만 아주 조금 풀고 갔습니다. 동차가 끝나고 11월 1달간은 쉬었고, 12월에 개강한 민소 심화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창한 강사님께서 심화강의를 매우 자세히 해주셨는데, 민사소송법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월 gs강의가 시작될 때까지 민사소송법을 위주로 공부했고, 특허법과 상표법은 기본서를 조금 보는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3월에 gs가 시작되고, 3~5월 gs를 들었습니다. 6~8월은 집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gs는 많이 듣지는 않았고 민사소송법은 이창한 강사님 한 분 것만, 특허와 상표는 2개만 들었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며 정리를 하는 게 좀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4. 생활패턴 및 시간관리

학습장소는 주로 집이었습니다. 집에서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 중간중간 1달 정도 해서 수험기간 2년 정도 중에서 총 3~4달 정도는 도서관과 스터디카페를 다녔습니다. 한 장소에서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편이라, 도서관을 가더라도 아침 8시 쯤 가서, 저녁 9시 전에는 집에 왔습니다. 아침에 공부가 잘되는 편이라 7시에는 일어나서 공부했으며, 건강관리의 경우 시험을 시작하고 3달 정도와 동차 시험이 끝나고 3달 정도 운동을 하였으나, 운동을 하는게 뭔가 더 피곤한 것 같아서, 그냥 관두고 별도로 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네 걷기 정도) 하루에 공부를 11시간~13시간 정도로 다양하게 하였으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집중이 안되는 날에는 그냥 하루는 마음을 내려두고 아예 쉬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휴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휴식날이나 시간을 자기에게 맞게 정해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시험 긴장해소 방법 및 응시 후기

저는 1차 시험을 보는 날 긴장을 해서 청심환을 먹고 갔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2차 동차 때는 “어차피 동차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기득 때는 “이제 나는 끝이다” 라는 생각에 너무 긴장을 했습니다. 보통 gs를 쓰면 항상 5분 이상은 남겼는데, 그 날은 시간을 정말 딱 맞게 썼습니다. 제가 긴장 해소를 하지 못해서 따로 추천드릴 긴장 해소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엄청 큰 시험인데, 나쁜만 아니라 모두가 긴장했겠지” 라는 생각으로 시험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나가며

1차 보기 전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차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마음가짐 갖지 마시고, 제가 동차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해서 동차 시험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동차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동차 때도 열심히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